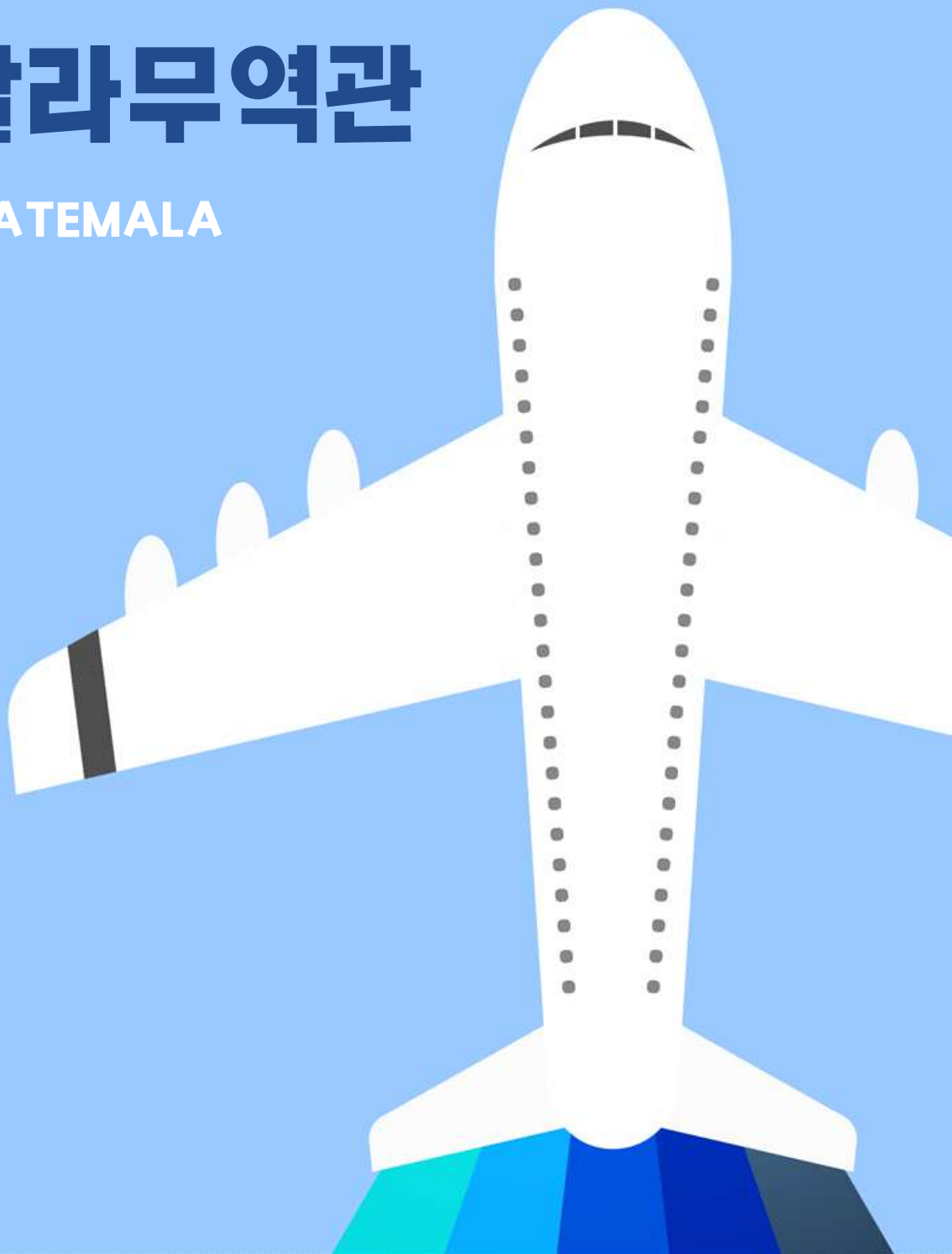


2024 해외출장 가이드

과테말라

과테말라무역관

KOTRA GUATEMAL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I. 과테말라 국가개황	1
II. 과테말라 경제 및 교역동향	7
III. 한국과의 교역동향	11
IV. 현지 체류정보	14
V. 상담시 참고사항	25

I. 과테말라 국가개황

국 가 명	과테말라공화국(República de Guatemala)
위 치	중미북부(북쪽으로는 멕시코, 남쪽으로는 엘살바도르와 접경)
면 적	108,889km ² (내수면 460km ² 포함) * 남한(100,295km ²)과 거의 유사
기 후	아열대성(수도 과테말라시티의 경우 1,500m 고산지대로 연평균 20~22°C의 상준 기후 형성)
수 도	과테말라시티(Ciudad de Guatemala)
인 구	1,884만명
주요도시 (인 구)	과테말라시티(92만명, 수도권 357만명), 비야누에바(43만), 믹스코(47만), 꼬반(21만), 게찰떼낭고(18만), 에스킨톨라(16만) 등
민 족	라디노(혼혈 56%), 마야(42%), 기타(가리푸나, 신카, 외국인 등2%)
언 어	스페인어(기타 약 23개의 토착언어 존재)
종 교	가톨릭(70%), 기독교(30%), 기타 토착종교 등
건 국 일	1821년 9월 15일(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Bernardo Arevalo (베르나르도 아레발로)('24.1.14 취임)
국내총생산(GDP)	1,640억US\$ ('23년)
실질경제성장률*	3.5%('23년)
1인당GDP*	5,473US\$('23년)
실 업 율	3.0%('23년) (과테말라통계청 '23 조회기준)
물가지수*	3.8%('23년)
화폐단위	Quetzal(Q/কেচাল)
환 율	1US\$ = 7.8Q. ('24.3.18 과테말라중앙은행 기준환율)
외환보유고*	198억US\$ ('23년)
산업구조	도소매업(19.2%), 제조업(13.8%), 농림수산업(9.4%), 부동산(8.3%), 건설(5.2%), 교육(4.7%), 공공행정 및 국방 등(4.3%) 순(과테말라중앙은행 '20.9월 조회기준)
교역규모	(수출) 142억US\$ / (수입) 303억US\$ ('23 전체)
대 한 교역규모	(한->과테말라) 328,927천US\$('23년) (과테말라->한) 130,701천US\$('23년)

□ 과테말라 전도(全圖)



1992 MAGELLAN Geographix/SMSanta Barbara, CA (800) 929-4627

□ 과테말라 주요 현안

- 과테말라 보건부는 2022년 10월 7일부로 의료시설과 교정시설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도를 폐지한다는 행정명령 238-2022를 발표했으며, 2024년 3월 현재 국민의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음.
- 과테말라 2022년 3분기 GDP는 3.8%이며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2년 12월 167.35포인트에서 2023년 1월 167.98포인트 증가함. 인플레이션은 2022년 12월 9.24%에서 2023년 1월 9.69%로 증가추세에 있음.
- 과테말라 중앙은행(BANGUA)에 따르면 2024년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인 것이라 예측함. 2024년 세계 경제 침체 가능성에 따라 과테말라 역시 모든 지표를 보수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2024년 인플레이션은 약 4%로 예상하며, 특히 기후 변화(엘니뇨와 라니냐 현상)로 인한 영향의 변수가 포함되었다고 강조함. 2024년 과테말라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이 전년대비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수입 역시 전년 대비 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1차산업(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의 2024년 성장률은 2.2%, 금융 및 보험 분야가 7.3%로 예상함.
- 과테말라 인플레이션은 70%가 수입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과테말라의 인구의 약 40%는 해외이민자의 가족 송금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소비 대부분을 가족 송금에 의존하고 있음. 2023년 송금액은 약 198억 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함. 2024년 1,2월에는 29억 9,6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표 성장률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늘어났음. 해외 가족 송금액의 대부분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약 300만 명의 과테말라 동포가 국내에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2023년 3분기에 발표된 미주 싱크탱크인 미주대화(La entidad Dialogo Interamericano)의 “2023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로의 가족송금”보고서에 따르면 과테말라는 이 지역에서 해외가족송금액 자원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10개국 중 하나임.

- 2023년 수출은 전년대비 9.6% 하락하여 미화 약 142억달러이며, 주 수출품 수출액은 커피 9억4560만달러, 설탕 5억9580만달러, 바나나 9억9420만달러임. 수출협회에 따르면, 2024년에는 커피, 바나나, 설탕 등 전통 수출 품목의 무역 성과를 기반으로 관상용 식물, 파인애플, 아보카도 등 농산물 수출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해외 30개의 시장과 17억 2300만 달러 규모의 잠재 수출 규모를 전망한다고 밝힘.
- 2023년 수입은 과테말라 중앙은행에 따르면, 전년 대비 5.6% 하락한 미화 약 303억달러임. 수입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소비재 제품으로, 지난해 101억달러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였고, 그 뒤를 이어 원자재 및 연료는 약 87억달러로 전년 대비 17% 하락함.
- 2023년 9월 과테말라의 한-중미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입 현상이 최종 타결되어 공동선언문에 서명함. 가입 협상을 통해 과테말라는 자동차 부품, 철강, 섬유 등 우리 측 수출 관심 품목 대다수를 개방하기로 하는 등 중미 5개국 대비 높은 관세 철폐에 합의함. 양국은 2024년 1월 8일 과테말라 가입 승인을 위한 공동위 개최 및 정식서명식을 치렀고, 나라별로 의회 비준 절차 돌입 후 의회 통과시 공식 발효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예정임.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게 되어 대 중미 수출 증가 기대.
- 과테말라 국가경쟁력위원회(Pronacom)에 의하면, 2023년 9월 기외국인 투자는 11억 달러임. 과테말라 정부는 행정절차 간략화, 자유 무역지대 법 개혁, 파산법, 전략 기반 시설의 유지 및 건설 강화에 관한 법률을 안정화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함. 과테말라는 신규투자 보다는 이미 설립된 외국기업의 재투자 비율이 높은 편임.
- 과테말라는 2023년 6월 25일 총선을 통해 32명의 비례대표와 128명의 지역구 의원 등 총 160명을 선출함.

- 2023년 8월 20일, 과테말라 대통령 결선 선거 시행 결과 차기 과테말라 대통령으로 현 정부 반대 당의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후보가 당선 됨.
* 아레발로 후보는 2,440,460표를 득표하여 58% 지지율을 얻어, 1,567,311표로 37%의 지지를 얻은 포레스 후보를 제치고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
- 2023년 10월 2일부터 20일간 전국 대규모 시위로 주요 도로봉쇄됨. 과테말라 최고선거법원(TSE)은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당선인 소속 정당인 씨앗운동당의 정당 자격을 정지, 이후 정당 자격 복원. 그리고 검찰에서 씨앗운동당의 정당 자격이 잠정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고선거법원 급습하여 선거자료 강제로 압수. 이에 원주민, 대학생 및 시민들은 콘수엘로 뿌라스 검찰총장과 라파엘 쿠루치체 특별검사 사임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임. 이로 인해 전국 휴교령, 지역시장 및 상점 영업중단, 기본소비재 및 연료 부족, 식품 사재기, 수출입 물품 통관 지연, 관광객 감소 등 경제적 손실 발생함.
- 2024년 1월 15일,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신임 대통령은 온갖 방해 공작 및 여야 충돌로 대통령 취임식이 9시간 지연되어 자정 0시에 대통령 취임식을 갖게 됨.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은 ”부패를 척결하고, 조직범죄와 싸우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빈곤을 퇴치하겠다. 사회 정의 없이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으며, 민주주의 없이는 사회 정의가 승리할 수 없다“라고 강조함.

□ 과테말라 향후 경제 전망

- 과테말라 인구는 23년 기준 1,880만 명으로 이 중 69%인 약 1,200만 명이 노동 가능 연령대임. GDP는 776억 달러로 중미 국가 중에서는 안정적으로 평가받았으며 2024년 2월 국제 평가기관 FITCH에서 신용도 평가 'BB', 'Stable' 평가를 받았으며, 무디스(MOODY'S)로부터 'BA1' 등급을 받음. 그러나 긍정적인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FITCH와 MOODY'S 모두 과테말라의 불안정한 정치 환경과 거버넌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함.

- 2022년 2월의 물가상승률은 2.98%, 2023년 2월에는 9.92%까지 상승했었음.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과테말라 경제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이 계속 하락하여 2024년 2월에는 3.3%를 기록함. 물가 상승률을 이끈 항목은 외 식비, 교통 및 의류로 서민들에게 큰 영향이 있음. 2024년 과테말라 중앙은행 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pm 4\%$ 임. 2024년 월 평균 근로자 소득은 3300케찰 (미화 약 423달러, 7.8환율 기준)를 넘기지 못하고 있음.
- 2023년 9월 과테말라의 한-중미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입 현상 이 최종 타결되어 공동선언문에 서명함. 이후 2024년 1월 8일 정식서명이 완료됨. 국회비준이 완료되어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되면 두 나라 간 협상 대 상 품목의 80%(9,791개 품목)가 곧바로 관세율 '0%' 적용을 받게 될 것임. 한-중미 FTA 발효 이후 향후 10년 간 실질 GDP 0.02% 증대, 소비자 후생 6.9억 달러 개선, 2,534개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분석됨. 수입의 경우, 관세 즉시 철폐 대상인 원당, 커피류, 수산가공품에 있어서는 즉각적인 교역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수출의 경우, 한국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인 중고 및 신규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 해당 제품군도 FTA 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과테말라는 공공사업(도로, 공항, 항구, 병원 등 인프라)을 통한 경제 활성화 를 기대하고 있으며, 주요 인프라 사업인 5개 병원 인프라 개선 사업은(3개 신축, 2개 증축) 중미 경제 통합은행(BCIE)에서 투자하고 있으며 1억9,300만 달러 규모로, 한국 수출입 은행 협조 융자기금이 7,900만 달러가 투입되어 있음

II. 과테말라 경제 및 교역동향

□ 시장특성 및 경제동향

- (교역환경) 중미시장 진출 교두보이자 역내 최대 소비시장
 - 중미 6개국 중에서 최대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는 중미시장의 관문이자 테스트마켓임. 과테말라는 중미 전체 GDP의 28%, 총수입액의 25% 차지함
 - 과테말라의 경우 최종 서명에서 제외되었으나, 파나마에서 FTA가 발효되며 한-중미 FTA 추가 가입 협상 가능성이 시사 되고 있음
 - 평균 관세율 2.7%의 높은 무역 개방도를 갖춘 개방 시장이며, 중미공동시장(CACM) 회원국(5개국) 간 역내 원산지제품 무관세 교역 시행하고 있음. 또한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와 관세동맹을 체결하여 지역 통합을 위해 노력 중임
- (사회환경) 치안 불안, 대미 의존, 빈곤 등 사회적 불안정성 내포
 - 과테말라를 비롯한 인근국(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은 모두 세계 최상위권 피살율 기록하고 있어 치안 불안이 기업 활동 및 경쟁력 저하의 주요인으로 지목됨. 2022년 중미 각국의 치안 당국의 공식자료에 따르면 과테말라는 온두라스와 함께 중미국가 중 살인사건 발생 1위 지역으로 선정됨
 - 교역 및 외환 유입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경제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음. 특히 '23년 7월 Global Trade Atlas 통계에 따르면 대미 의존도는 수입 30.63%, 수출 31.42%에 달하며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가족 송금액은 '23년 19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 기록함
- (투자환경) 정부·산업계의 수출·임가공업 경공업 진흥정책 지속
 - 봉제업(임가공) 및 플라스틱 제조업이 주력업종이며, 미국·인근 시장의 생산기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며 중국 진출 미국 기업들이 생산거점 이동을 고려할 경우, 미국과 근접하고, 상대적으로 좋은 금융 시스템을 갖춘 과테말라도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임. 2023년 일본 자동차 부품 공장인 YASAKI가 부품공장을 시작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섬유 외에 다른 제조업의 가능성을 확인함. 과테말라 새

정부의 출범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법적 안정성 확보, 인프라 개선, 세제 혜택 개선등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적극적임.

□ 과테말라 교역 동향

- 과테말라 교역액은 수출입 모두 2022년 5월 이후 코로나 사태가 회복세에 들어감에 따라 건설산업과 섬유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음

<최근 3년간 과테말라의 수출입 동향> 연도별수입액(백만 US\$)

구 분	2021	2022	2023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수 출(백만US\$)	13,753	15,695	14,194	-9.6
수 입(백만US\$)	26,607	32,116	30,318	-5.6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과테말라 수입 국가별 성장률은 미국 (33.6%), 중국(13.6%), 중미(13.8%), 한국(1.3%)차지
- 인접한 FTA체결국(미국, 멕시코 등), 중미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역내국들을 제외하고는 중국, 브라질, 인도, 일본, 독일, 한국 등 제조 강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많은 편이며, 대한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

<최근 3년간 과테말라의 국별 수입규모>

순위	국 가	연도별 수입액(백만US\$)			비중(%)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1	미국	8,105	10,259	9,181	30.5	31.9	30.3	-10.5
2	중국	4,940	5,856	5,571	18.6	18.2	18.4	-4.9
3	멕시코	2,705	3,254	3,245	10.2	10.1	10.7	-0.3
4	엘살바도르	967	1,047	1,018	3.6	3.3	3.4	-2.8
5	일본	686	695	819	2.6	2.2	2.7	17.8
6	코스타리카	670	812	811	2.5	2.5	2.7	-0.2
7	브라질	470	767	717	1.8	2.4	2.4	-6.5
8	독일	446	518	644	1.7	1.6	2.1	24.4
9	인도	605	693	630	2.3	2.2	2.1	-9.1
10	콜롬비아	531	660	620	2.0	1.9	2.0	-6.1

순위	국 가	연도별 수입액(백만US\$)			비중(%)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13	대한민국	510	470	479	2.0	1.5	1.6	1.9
총계		26,607	32,116	30,318	100.00	100.00	100.00	-5.6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수입 대상국별로 품목이 제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미국에서는 광물성 연료, 플라스틱, 곡물, 원자로·보일러·기계류 순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수입하였고 예년과 다르게 청강 수입이 감소함. 멕시코에서는 전기기기, 조제향료와 화장품, 플라스틱 순이며 이 중에서 조제향료와 화장품 수입이 급증함.

<2023 주요 수입 품목 >

순위	품목	HS Code	수입액 (백만\$)	비중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1	광물성 연료	27	5,069	16.7	-11.2
2	자동차 및 부품	87	2,680	8.8	22.6
3	전기기기	85	2,397	7.9	2.6
4	원자로·보일러·기계류	84	2,390	7.9	5.0
5	플라스틱	39	1,502	5.0	-20.1
6	철강	72	1,176	3.9	-12.7
7	의약품	30	992	3.3	-9.8
8	곡물	10	845	2.8	-14.1
9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	48	816	2.7	-30.9
10	각종 조제 식료품	21	734	2.4	14.5
총계			30,318	100	-5.6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과테말라 수출국은 DR-CAFTA에 힘입어 미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30.3%), 이어 중국(18.4%), 멕시코(10.4%)가 차지
- 수출 품목은 농산물과 의복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5대 상위 품목은 과일·견과류, 의류, 커피, 동식물성유지, 설탕 순임.

<최근 3년간 과테말라의 국별 수출규모>

순위	국 가	연도별 수출액(백만U\$)			비중(%)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1	미국	4,274	4,884	4,378	31.1	31.1	30.8	-10.4
2	엘살바도르	1,731	2,049	1,876	12.6	13.1	13.2	-8.4
3	온두라스	1,399	1,585	1,631	10.2	10.1	11.5	2.9
4	니카라과	844	998	987	6.1	6.4	7.0	-1.1
5	멕시코	593	689	673	4.3	4.4	4.7	-2.2
6	코스타리카	541	635	643	3.9	4.1	4.5	1.2
7	네덜란드	394	636	614	2.9	4.1	4.3	-3.4
8	파나마	300	323	324	2.2	2.1	2.3	0.4
9	스페인	266	305	294	1.9	1.9	2.1	-3.8
10	도미니카공화국	198	252	232	1.4	1.6	1.6	-8.2
25	대한민국	91	161	68	0.7	1.0	0.5	-57.6
총계		13,752	15,695	14,194	100	100	100	-9.6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2023 주요 수출 품목 >

순위	품목	HS Code	수입액 (백만\$)	비중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1	과실·견과류	08	1,565	11.0	6.2
2	의류와 그 부속품	61	1,383	9.74	-16.6
3	커피·차·향신료	09	1,324	9.3	-13.8
4	동식물성유지	15	1,060	7.5	-1.0
5	설탕	17	775	5.5	-18.3
6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	548	3.9	-9.2
7	종이와 판지, 제지용펄프	48	449	3.2	10.7
8	채소	07	409	2.9	1.7
9	음료·주류·식초	22	403	2.8	-10.1
10	의료용품	30	398	2.8	15.9
총계			14,194	100	-9.6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III. 한국과의 교역동향

□ 한국의 대과테말라 교역동향

- 과테말라의 대한 수입액은 '23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한국-과테말라 간 교역 현황>
(단위 : 천달러, %)

구 분	2021	2022	2023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한국 對과테말라 수출	383,922	322,763	328,927	1.9
한국 對과테말라 수입	138,280	131,362	130,701	-0.5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ITA)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자동차, 봉제, 부자재(면사·합성섬유·염료), 기계류 등 내구재와 산업재에 집중되어 있음. 자동차, 가전 등 전통적 강세품목의 한국산 선호도는 꾸준하나, 중국·멕시코 등 경쟁국의 시장점유율도 지속 증가추세임
 - 승용차의 경우, 매년 수입 물량은 18~19만대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나 신차와 중고차 별로 주요 수입 국가가 변하는 양상을 보여줌. 이는 글로벌 메이커들이 아시아 및 중남미에서 생산공장을 다변화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임.
- 2023년 12월 기준 對과테말라 기타화물자동차 수출이 45.7% 증가했으며, 폴리프로필렌과 기타정밀 화학제품이 38.8%, 48.7% 각각 증가함. 또한 제조담배제품의 수출이 72.1% 증가함. 섬유 산업 관련 제품들은 수출이 다소 감소함. 2022년에의 주요 수입품이었던 커피, 동스크랩, 알루미늄스크랩, 티셔츠 등은 감소하였고, 니켈광, 스웨더의 수입이 급증함.

<'23년 한-과테말라 주요 수출입품목>

(단위 : 천달러, %)

순위	한국 對과테말라 수출			한국 對과테말라 수입		
	품목명(HS)	금 액	증감률	품목명(HS)	금 액	증감률
1	기타화물자동차(741290)	46,332	45.7	커피(0901)	53,797	-20.4
2	경유(133200)	31,434	-18.0	기타합금철(618190)	20,935	0
3	압축점화식(741170)	21,286	11.4	니켈광(117000)	19,587	44.7
4	기타정밀화학제품(229090)	19,076	48.7	바나나(011617)	10,436	9.8
5	폴리프로필렌(214004)	15,528	38.8	동스크랩(622130)	6,477	-37.5
6	불꽃점화식(741160)	13,512	-15.9	알루미늄스크랩(621120)	5,363	-37.9
7	의약품(226200)	11,275	-44.7	스웨터(441108)	3,977	81.7
8	제조담배(015420)	11,092	72.1	언더셔츠(441109)	3,392	-43.5
9	염료(221100)	10,774	-14	종자류(017000)	1,385	5.2
10	편직물(436000)	8,795	-19	고철(618400)	1,241	-38.0

* 출처 : 한국무역협회(KITA)

□ 한국의 대 과테말라 투자현황

- 주요 한국기업들은 현지 과테말라 내 신규 투자에 착수하는 등, 현지 섬유 기업들의 당지 투자 추세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미국 바이어들의 주도로 기존 아시아에 생산이 집중되었던 것을 DR-CAFTA 지역과 밸런스를 맞추고자 니어쇼어링이 가속화되고 있어, 여러 한국 대형 섬유벤더들이 과테말라 내 대형 투자를 준비하고 있음
- 봉제업종과 관련된 중·소규모 임가공업체가 주종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지사를 설립, 운영 중
- 과테말라 섬유산업협회(VESTEX)에 따르면 봉제, 부자재, 방직·편직·직조, 무역 등 총 120여개의 한국기업이 회원사로 등록, 활동 중임
- 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과테말라 직접투자 신고 건수는 '89년 37건, '00년 16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의복, 섬유제품)이 대부분을 차지(법인수 86%, 투자금액 84%)

<한국의 대과테말라 투자현황('80-'23년 누계) 단위: 백만\$>

업종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건설업	4	32.1	20.2
도매 및 소매업	2	6.0	5.1
부동산업	1	1.2	1.1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0	0.3	-
숙박 및 음식점업	2	0.3	0.2
정보통신업	1	0.1	0.1
제조업	95	397.8	166.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	0.5	0.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	0.0	0.0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1	0.0	0.0
기타 제품 제조업	2	2.1	1.2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8	59.3	29.1
그 외 기타 섬유제품	2	10.2	1.8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	0.0	0.0
날염 가공업	1	0.5	0.0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1	3.0	2.9
편조원단 제조업	3	9.5	9.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0	36.1	15.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	0.4	0.4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1	0.3	0.3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1	0.1	0.0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67	214.0	131.3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56	153.5	91.1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복 제조업	1	1.1	0.4
셔프 및 블라우스 제조업	2	25.3	18.3
여자용 겹옷 제조업	5	13.3	13.3
편조의복 제조업	3	20.9	4.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	120	2.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	1.6	1.3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2	1.4	1.2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1	0.2	0.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0.0	0.0
총합계	106	437.9	192.9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4.2월)

IV. 현지 체류정보

1. 입국 요령

□ 입국 심사

- 한-과테말라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한국인은 90일간 무비자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며, 1회에 한해 90일 연장 가능. 비자 연장은 과테말라시티 Zona4에 위치한 이민국(Direccion General de Migracion)에 방문하여 당일 조치 가능
- 전자출입국 신고서는 출국 및 입국 3일전부터 신고가 가능하며, 가족과 여행하는 경우 가족 중 한 명만 제출하면 된다. 과테말라 이민국(링크: <https://farm2.sat.gob.gt/declaDelViajeroGt-web/pages/public/declaracionViajero.xhtml#no-back-button>) 작성페이지에 들어가 이메일을 기입하고 정보 입력후 생성된 QR를 여행 당일 공항에 제출한다.
- 특히, 짐표(Luggage Tag)는 수화물 도난 예방조치로 공항직원이 육안 확인 후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함
- 짐을 찾아 입국신고서 제출시 한번더 통과 혹은 짐 재검색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김치 등 한국음식은 검색대 통과 시 Tradicional comida(전통음식)이라고 말하면 통과는 가능하지만 검색대에서 물건을 모두 꺼내어 검사를 받을 확률이 높음

□ 세관 검사

- 전반적으로 세관심사가 까다로운 편은 아니나 짐이 많거나 박스 포장의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입국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 녹색등은 면제, 적색 점등시 엑스레이 검사하는 무작위 선별 형태로 세관 시스템 변경
- 과거 대통령이 연루된 세관 비리 사건이 있어 세관검사를 엄격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지참물 종류와 수량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세관원이 내용물과 세관신고서 작성 내용을 직접 대조하고 오류 발견 시 벌금을 물리거나 과세하기도 하므로 신고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함

- 이를 대비하여 샘플은 반드시 인보이스와 함께 해당상품에 어떠한 형태로든 ‘Sample(서어 : Muestra)’임을 표기하는 것이 좋음

□ 1만 U\$ 이상 고액현금 소지 관련

- 합계금액 1만U\$ 이상의 현금과 유가증권(여행자수표, 상품권 등 포함) 지참 상태로 입출국 시 반드시 세관 당국에 신고해야 함
 - 과테말라는 미신고 고액현금 휴대를 자금세탁 범죄로 간주하며, 자금세탁 범죄는 주재국에서 상당히 무거운 죄에 해당
 - 향후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체포는 물론 향후 수사와 공판 진행으로 인한 출국금지, 보석금 납부, 변호사 선임 등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

□ 공항 출국장(대합실)

- 세관 검사장을 지나면 외부인의 출입이 일부 제한된 홀이 나오며, 이곳에 공항택시, 렌터카 부스 등이 위치함. 입국장 출구를 나서면 바로 주차장과 연결되며 잡상인이 많은 관계로 차량 또는 사전에 약속된 안내인이 확인될 때까지 주의해야 함. 특히 출국장에서도 출구가 좌/우로 나뉘므로 사전에 어느 포인트에서 만날 것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

2. 날씨 및 복장

□ 현지 날씨

- 과테말라 시티는 해발 1,500m 고원에 위치해 있어 연평균 20 ~ 22℃ 내외의 상춘 기후 유지(한국의 5월 기후와 유사). 반면, 저지대 또는 해안가는 연중 내내 뜨겁고 무더운 열대성 기후

- 계절로는 크게 건기(12~4월)와 우기(5~11월)로 구분되며 통상 건기가 쾌적
 - 건기의 끝자락인 3~4월의 기온이 가장 높고(섭씨 30℃ 내외 까지도 상승) 우기로 들어서면서 다시 선선해지는 기후 특성을 보임

□ 복장

- 계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하복 또는 얇은 춘추복 위주로 준비하면 무난
 - 단, 해안가 또는 저지대 방문계획이 있는 경우, 시기에 상관없이 여름옷을, 1~2월 방문 시에는 저녁이 몹시 쌀쌀해지기도 하므로 늦가을용 외투 지참
 - * 단, 저지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이 안전

3. 결제수단 및 환전

□ 결제수단

- 미화는 외국인을 주로 상대하는 호텔, 관광업종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므로, 소액의 현지 화폐를 보유하는 것이 좋음. 대개의 상점에서 VISA, MASTER, American Express 등 주요 카드로 결제 가능하나 일시적인 통신장애가 발생하기도 함

□ 환전

- 공항 내 환전소는 적용환율이 매우 불리하며, 따라서 호텔 데스크 또는 숙소 인근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훨씬 유리(환전 시 신분증(여권) 지참 필수)
 - * BI은행 현지화(게찰 또는 Quetzal) 매수환율('20.6.24) : 1 US\$ = 7.56 Quetzal

4. 기타 유의 및 참고사항

□ 교통편

- (일반) 대중교통체계가 낙후되어있고 버스는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가까운 거리라도 택시 이용이 바람직
 - 택시강도가 성행하므로 거리에서의 일반택시 탑승은 매우 위험하고 필히 콜택시, 호텔택시 또는 우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다만, 최근에는 우버

사고도 종종 발생하는 관계로, 배정된 운전자의 이력을 살펴 운행 이력이 적거나 너무 최근부터 우버 운행을 시작한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음

* (콜택시업체) Amarillo Express(+502-2470-1515 또는 1766)

○ (공항) 대개의 호텔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므로 공항↔호텔 간 이동 시에는 이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

- 그렇지 않은 경우 공항에 정식 등록된 조합택시(AirporTaxi)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택시부스는 세관 통관 후 입국장 출구 우측에 위치.

택시부스에서 목적지를 알려주면 금액이 기재된 티켓을 발급하며, 입국장 출구 정면에 대기 중인 흰색택시 기사에게 이를 전달하고 탑승하는 방식

* (요금) Zona 10(호텔존) 70께찰 전후, Zona 7(한인타운 인근) 100-120께찰 전후(미화는 택시부스에서 선결제하거나 탑승 전 택시기사와 상의 필요)

- 밤늦게 도착하는 경우에는 부스 상주직원이 없는 관계로 입국장에 대기 중인 공항택시에 바로 탑승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호텔에 미리 연락해 호텔 셔틀버스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치안

○ 치안이 매우 불안하고 도심에서도 주야를 가리지 않고 절도·도난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야간 단독외출 뿐 아니라 도심에서의 주간 단독보행 또한 금하는 것이 좋음

* (사례) 시민의 왕래가 빈번한 오전 11시경 한인여대생이 Zona10 변화가를 보행 하던 중, 이면주차 차량에서 권총강도 2명이 하차, 현금·휴대폰 등을 강탈·도주

○ 차량 이동의 경우에도 신호대기 또는 교통정체 중일 때가 가장 취약한데, 다인조 오토바이 강도가 차량 양옆으로 접근하여 총기 협박 후 갈취하는 방식이 일반적

○ 따라서, 외출 시 과도한 현금이나 고급시계, 귀중품은 휴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차량 내부에 있더라도 휴대전화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함

○ 특히 총기 소지 및 이로 인한 사고가 일상화되어 있는 만큼, 어떠한 경우라도 강도의 요구에 절대 순응하고 반항하지 않아야 함

□ 자연재해

- 과테말라시티 주변에 활화산 3개가 있고 크고 작은 분출이 수시로 발생
 - 사까떼페케스(Sacatepequez)주 안티구아(Antigua)시에 인접한 후에고(Fuego) 화산*이 '18년 6월 3일 크게 폭발, 쇄설류가 아랫마을을 덮쳐 최소 100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시티로 화산재가 확산되면서 La Aurora 국제공항 일시 폐쇄(당일 오후부터 익일 오전까지 유지)
 - * 과테말라 시티에서 직선거리로 남서서 방향 약 40km 거리에 위치
- 또한 남서연안을 따라 카리브판과 코코스판이 만나는 단층대가 가로지르고 있어 크고 작은 지진이 수시로 발생하며, 수도에서도 대다수의 주민이 인지할 정도의 흔들림이 자주 관찰
- 자연재해로 갑자기 공항이 폐쇄되어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사들은 취소에 따른 변상이나 숙소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출장 시 비상금이나 속옷 등을 여유 있게 챙기는 것이 좋음
 - 상황 발생 시 현지에서는 대체항공편 검색, 재발권이 매우 어려워지는바, 만약을 대비하여 24시간 대응이 수월한 여행사를 통해 발권하는 것이 안전
 - * 취항 항공사 대부분 예약 변경 접수가 콜센터로 일원화되어 있어 전화 폭증 시 신속한 대응이 잘 안 되는 편

□ 위생

- 수돗물은 지하수 취수가 일반적이며, 정수설비 불량 및 도심 난개발로 수질 오염 우려가 있음. 특히 아메바 등 세균 오염, 석회질 함유 등의 이유로 음용에 부적합하며, 구강세척 및 양치를 하는 경우에도 병입 생수를 이용하는 것이 좋음
- 대중음식점에서도 식당에서 제공하는 물보다는 병입 생수를 마시는 것이 바람직

□ tip문화

- (식당) 관례적으로 총 금액의 10% 내외를 지불하며, 통상적으로 계산서에 이를 포함하여 청구하기도 하므로 확인 필요(명세서에 Propina로 표기)
- (호텔) 방청소 및 벨보이(포터) 팁은 1U\$ 또는 현지화 10개찰 내외가 적당

□ 무역관 오시는 길(Google 좌표 14.599035, -90.513176)

- 무역관은 Zona 10(제 10구역) 중심가에 위치한 ATLANTIS빌딩 6층에 입주해 있으며, WorldBank, 베네수엘라대사관, Maersk 등 주요기관, 기업들도 위치
 - 공항에서 출발할 경우 택시로 15-20분 소요되며, 공항택시(AirporTaxi) 기준 요금은 현지화 70궼찰 수준(정액제)
- 주요 호텔*들이 무역관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만큼 근처에 체류하는 경우 도보 방문도 가능하나, 보행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가급적 삼가는 것이 안전
 - * (1블럭) Real Intercontinental, Clarion Suite / (2-3블럭) Westin Camino Real, Holiday Inn 등

□ 기타

- (시간대) UTC -6:00 중앙아메리카 시간대에 편입되어 있고 일광절약시간제는 운영하지 않으며, 한국보다 15시간 늦음
 - * (예시) 한국 오전 9시 = 과테말라 전날 오후 6시
- (근무시간) 일반적으로 오전 8시 ~ 오후 5시가 보편적이나 기업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 관공서는 오전 8시 ~ 오후 4시 또는 오전 9 ~ 오후 5시, 은행은 지점에 따라 운영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음
 - * Banco Industrial Fontabella지점 월-토 10:00-19:00 / Europlaza지점 월-금 09:00-18:00
- (전압) 이용전압은 110V·60Hz이며, 플러그는 A 또는 B형이 보급되어 있어 11자형 변환어댑터를 지참하는 것이 좋음
 - 현지 호텔에도 일정량을 비치해두고 있으나, 한국의 F형(220V용) 보다 구경이 작은 C타입 어댑터여서 삽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음

□ 공휴일(2024년 기준)

날 짜	공휴일	날 짜	공휴일
1월 1일(월)	신년	9월 15일(일)	독립기념일
3월 28일(목)~3월 30일(토)	부활절(매년 변경)	10월 20일(일)	혁명기념일
5월 1일(수)	노동절	11월 1일(금)	만성절(한식)
7월 1일(월)	육군의 날	12월 25일(수)	성탄절
8월 15일(목)	성모 승천일		

5. 주요 연락처

□ 항공사·여행사

구 분	업체명	연락처	업체명	연락처
항공사	UNITED	(TEL) +502-2385-9610	AVIANCA	(TEL) +502-2470-8222
	DELTA	(TEL) +502-2302-5799	COPA	(TEL) +502-2385-5500
	AMERICAN	(TEL) +502-2278-7000	AEROMEXICO	(TEL) +1-800-835-0269
한 인 여행사	제트여행사	(TEL) +502-2383-4324 / (Email) jetexpressgua@yahoo.com		
	샬롬여행사	(TEL) +502-2439-7650 / (Email) shalomlingua@hanmail.net		
	하나투어	(TEL) +502-3042-6968		

□ 렌터카·콜택시

구 분	업체명	연락처
렌터카	HERTZ	(TEL) +502-2314-4444 (URL) www.rentautos.com.gt (특징) 공항 및 WESTIN호텔에 상주 사무소를 두고 있어 임차, 반납 등 이용 편리
	AVIS	(TEL) +502-2324-9000 (URL) www.avis.com.gt (특징) 공항 및 과테말라시티 중심가에 3개소가 있으며, Zero Deductible 등 폭넓은 옵션 제공
	스마일렌터카	(TEL) +502-2432-2468 / 4250-1803 (특징) 교포 운영 렌터카업체(중고차매매 겸업)
	현대렌터카	(TEL) +502-5353-1508 (특징) 교포 운영 렌터카업체(중고차매매 겸업)
콜택시	TAXI EXPRESS AMARILLO	(TEL) +502-2470-1515 (요금) 4.8계찰/km (장거리요금) 안티구아 300계찰, 빨린 250계찰 등 (특징) 과테말라 최대 규모 콜택시기업(자회사로 Verde Express社 보유)

■ 비상연락망

○ 과테말라무역관

- (주소) 13Calle 3-40, Zona 10, Edificio Atlantis, Oficina 605, Guatemala
- (TEL) +502-2298-0000

직 위	성 명	연락처
관 장	심재상	csshim@kotra.or.kr (핸드폰) +502-4707-1983
실무담당자	곽은자	rebecakwak@kotra.or.kr

○ 주과테말라 대한민국대사관

- (주소) 5Avenida 5-55, Zona14, Edificio Europlaza, Torre3, Nivel 7, Guatemala
- (TEL) +502-2382-4051 ~ 5 | (긴급전화) +502-3368-9333

○ 사건·사고 관련 주요 연락처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경찰청(범죄신고) Policia Nacional Civil	110 또는 120	앰불런스(의용) Bomberos Voluntarios	122
교통경찰(PMT) Policia Municipal de Transito	1551	앰불런스(국영) Bomberos IGSS	128
관광경찰 Policia de Turismo	+502-2361-6052	앰불런스(시영) Bomberos Municipales	123
Roosevelt병원(국립)	+502-2321-7400	앰불런스(민간) Alerta Medica	1711
Centro Medico병원(사립)	+502-2279-4949	앰불런스(적십자) Cruz Roja	125

○ 한인 운영 클리닉

구 분	업체명	연락처
가정의학과	박상민클리닉	(주소) 36 Avenida 1-74, Centro Comercial Mateo Xpress Local 7, Zona 7 (TEL) +502-2439-8225 (운영시간) 월-금 09:30-18:30 / 토 09:30-14:00
치 과	미소치과	(주소) 32 Avenida 1-36, Utatlan1, Zona 7 (TEL) +502-2439-5445 (운영시간) 월-금 09:00-17:30 / 토 09:00-15:00

□ 주요식당

종류	상호명	연락처	비 고
한식	유명한집	(주소) 1 Calle 35-09, Zona 7 (TEL) +502-2433-9788	탕요리 전문
	한국관	(주소) 2 Calle 33-14, Zona 7, Calzada Mateo Flores (TEL) +502-2439-5927	숯불갈비 전문
	향 이	(주소) 2 Calle 33-40, Zona 7, Calz. Meteo Flores (TEL) +502-2233-7210	한 식
	중국성	(주소) 36 Avenida 1-59, Zona 7 (TEL) +502-2439-3508	한국식 중식
	명 동	(주소) 11 Calle 5-08, Zona 9 (TEL) +502-2441-5266	한식·중식 및 숯불갈비 전문
	순 풍	(주소) 32 Avenida 1-34, Zona 7 (TEL) +502-5577-7686	순대국 전문
	명 가	(주소) 13 Calle 3-20, Cdad. de Guatemala 01009 (TEL) +502-2219-9666	한 식
	고 기	(주소) 36 avenida 1-74, colonia Toledo Centro comercial (TEL) +502-4150-3788	한 식
	화산정	(주소) 4A Avenida 10-01 Zona 10 Cdad. de Guatemala (TEL) +502-4869-7425	한 식
	과테골	(주소) 46 calle 6-87 Zona 12 Col. Monte Maria 3 (TEL) +502-2477-2638	한 식
중식	Lai Lai	(주소) 12 Calle 5-27, Zona 9 (TEL) +502-2331-6507	정통 중식
	PF Chang	(주소) 12 Calle 2-25, Zona 10 (TEL) +502-2376-5400	미국식 중식
현지식	Hacienda Real	(주소) 5 Avenida 14-67, Zona 10 (TEL) +502-2380-8383	과테말라식 숯불구이 전문
	Donde Mikel	(주소) 6 Avenida 13-32, Zona 10 (TEL) +502-2363-3308	스페인식
	Palermo	(주소) 4 Avenida y 12 Calle, Plaza Fontabella, Zona 10 (TEL) +502-2336-7129	아르헨티나식 아사도 전문

6. 유용한 현지표현

- 안녕하십니까?(아침인사) - Buenos dias(부에노스 디아스)
- 안녕하십니까?(점심인사) - Buenas tardes(부에나스 따르데스)
- 안녕하십니까?(저녁인사) - Buenas noches (부에나스 노체스)
- 감사합니다. - Gracias (그라시아스)
- 실례합니다. - Con permiso (꼰 빼르미소)
- 계산서 주세요. - La cuenta, por favor (라 꾸엔따, 뽀르 파보르)
- 물 좀 주세요. - Agua, por favor (아구아, 뽀르 파보르)
- 얼마입니까? - Cuanto cuesta? (꾸안또 꾸에스타?)
- 메뉴 주세요 - La carta, por favor (라 까르따, 뽀르 파보르)

7. 주요 관광지

안티구아(Antigua)



- 1543년 스페인 침략기에 건설된 옛수도로, 1773년 대지진으로 파괴되면서 현재의 과테말라시티로 이전
- 성당 등 주요 건축물들이 중세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어 1979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 제1의 관광지로 자리매김
- 과테말라시티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

2. 아띠뜰란호수(Lago de Atitlán)



- 과테말라시티에서 147km, 해발 1,562m에 위치한 칼데라호
- 3,000m 이상의 화산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체계바라가 풍경에 반해 혁명을 잊고 머물렀다 하여 유명세를 탄 곳
- 특히 호수 주변 부락을 배로 이동하며 인디오들의 다양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음

3. 띠칼(Tikal)



- 과테말라 북쪽 빠엥(Peten)주에 위치한 마야유적지로 1979년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
- 유적지는 3천여 개가 넘는 크고 작은 건조물로 구성
- 버스로는 12-14시간, 항공편으로는 1시간 소요

4. 빠까야화산(Volcan de Pacaya)



- 해발 2,562m의 활화산으로, 경우에 따라 흐르는 용암을 근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곳
- 등반에는 2시간 정도 소요되며 말을 타고 등산도 가능
- 과테말라시티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

5. 리오둘세(Río Dulce)



- 과테말라 북쪽 이사발(Izabal) 호수 인근에 위치, 천혜의 원시림과 자연풍경을 간직한 관광명소
- 이사발호수, 산펠리페성, 흑인정착촌인 리빙스톤 등이 주변의 주요 관광지임

V. 상담시 참고사항

□ 과테말라 상거래 참고사항

1) 상담/계약 체결 시

- 제조업이 GDP의 18%를 차지하나 섬유봉제업, 플라스틱제조, 식품가공업 등에 편중되어 있고, 따라서 기타 소비재, 자본재, 원부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임. 다만, 수입상들은 비즈니스 초기단계에서 시장조사, 소비자 기호파악 등을 위한 소량구매가 일반적인 만큼, 처음에는 바이어가 원하는 소량 오더를 수용하되, 향후 설득을 통해 거래량을 키워가겠다는 자세가 바람직
- 과테말라의 많은 업체는 금융비용 및 복잡한 절차 등으로 L/C 개설을 회피하며 T/T 거래를 선호(선금 30%, 선적 후 70% 등). 이 경우, T/T 송금 후 수출업체는 수입업체에 Commercial Invoice, B/L, Packing list 등의 서류를 보내야 하며, L/C 거래 시 과테말라 은행의 대외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미국 소재 외국은행을 통한 CONFIRMED L/C 개설이 안전
- 중미지역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큰 과테말라의 많은 수입업체는 인근 중미국에도 판매장이나 거래선을 두고 있으며, 과테말라에서 시장성이 있는 제품은 인근 국가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과테말라를 기점으로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중미시장을 점진적으로 공략한다는 자세가 필요
 - 다만, 과테말라 바이어들은 과거 스페인 독립 직후 중미연방의 수도였던 관계로 중미지역의 만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인접 국가와는 심적으로 가까이 지내나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경우가 있음

- 과테말라는 전체인구의 53.7%가 빈곤층(극빈층 11.5%)으로 구성, 중산층이 취약하고 소득불균형에 따른 소비구조 양극화가 특징임. 이에 소수의 상류층과 다수의 서민층을 따로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함. 다만, 상류층의 경우도 한국 입장에서 당연하게 생각되는 친환경, 고품질 추구 등의 가치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 품목별로 현지 소비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
- 과테말라는 전체 인구의 40%가 마야 후손 원주민(인디오)이며, 혼혈(라디노), 백인 등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면적으로는 인종 간 갈등이 표출되지 않지만, 인디오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인종에 대한 질문 혹은 코멘트(‘당신이 (순수) 백인이냐, 혼혈이냐, 인디오냐, 마야인이냐’ ‘과테말라의 인종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등)는 삼가야 함

2) 상담 이후 후속조치 시

- 과테말라 수입상들은 상담 약속이나 거래 추진을 원치 않을 경우 직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보다는 약속시간을 변경하거나 혹은 “나중에 보자”, “담당자가 없다”는 등으로 간접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이어의 진의를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
- 중미지역 기업들은 가족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오너 또는 의사 결정권자 집단과 실무자 집단 간 의사소통이 사실상 단절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대부분의 의사 결정이 오너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들이 휴가 또는 출장으로 자리에 없는 시간이 많아 즉시 응답을 하지 못하거나 실무자가 이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 과테말라 바이어들은 이메일 또는 전화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상대적으로 희박하기 때문에 본인이 급하지 않으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김. 이에, 사절단 이후 교신 시에는 무역관 담당자를 참조하여 무역관 직원이 별도로 접촉하여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